

화학제품 수출증가율 25.7% 3위

산자부, 1-9월 162억7000만달러 달해 ... 수송기계 · 일반부품 1-2위

2005년 3/4분기에 부품·소재 부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수출 급증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3/4분기 부품·소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0.2% 급증한 321억6000만달러를, 수입은 13.2% 증가한 25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.

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부품·소재 무역흑자 폭이 68억5000만달러에 달함으로써 1998년 4/4분기의 사상 최대치(57억2000만달러)를 갱신했다.

이에 따라 2005년 1-9월 부품·소재 누적 무역흑자 폭은 164억달러로 2004년 수준(152억달러)을 넘어섰다.

산자부는 부품·소재 수출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2005년 부품·소재 무역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2005년 1-9월 수출증가율은 수송기계(41.9%), 일반부품(27.3%), 화합물 및 화학제품(25.7%), 전자부품(19.6%) 순으로 높았다.

화합물 및 화학제품은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세 지속과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5.7% 증가해 16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.

<화학저널 2005/11/07>